

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환자의 임상적 분석

정순영 · 서형식

삼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A Clinical Analysis of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 Dermatology

Soon-young Jung · Hyung-sik Seo

Dept. of Dermatology, Ophthalmology & Otorhinolaryngology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We analyzed statistics study in 1394 patients, who had visited to the Dept. of dermatology, ophthalmology & otorhinolaryngology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from July, 2003 to December, 200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Distribution of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and dermatology classification was 14.23% in ophthalmology, 13.92% in rhinology, 4.79% in laryngology, 23.05% in dermatology, 8.25% in otology, 2.14% in stomatology and 33.63% in other.
2. Ophthalmology group were 12.39% males and 14.16% females in 61years old over. In treatment term, ophthalm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2 weeks within were 85.84%. Blepharism and asthenopia were the most common ophthalmologic disease.
3. Rhinology group were 18.10% males in 11-20 years old and 14.48% females in 10 years old within. In treatment term, rhin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2 weeks within were 70.59%. Rhinitis and sinusitis were the most common rhinologic disease.
4. Otology group were 19.08% males and 16.80% females in 51years old over. In treatment term, otologic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2 weeks within were 64.89%. Tinnitus and vertigo were the most common otologic disease.
5. Laryngology group were 10.53% males and 17.11% females 41-50 years old. In treatment term, laryng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2 weeks within were 85.53%. pharyngitis and abnormal pharyngolaryngeal region sensation were the most common laryngologic disease.
6. Stomatology group were 11.76% males in 31-40, 41-50 years old and 17.65% females in 61 years old over. In treatment term, stomat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2 weeks within were 82.35%. Stomatitis and labium spasm were the most common stomatologic disease.
7. Dermatology group were 11.75% males and 15.30% females in 21-30 years old. In treatment term, dermat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2 weeks within were 72.95%. Acne and urticaria were the most common dermatologic disease.
8. Other group were 8.99% males in 41-50 years old and 14.04% female in 61 years old over. In treatment term, other group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2 weeks within were 69.29%. Bell's palsy and common cold were the most common other disease.

Key words: Clinical Analysis,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Dermatology

교신저자: 서형식,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38 삼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Tel: 033-741-9266, E-mail: aran99@sangji.ac.kr.)

서론

병원 단위의 환자 통계는 인구집단의 유병율이나 발생분포 그리고 대체적인 한방에 대한 기대치, 선호도 등을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연구 방향 조정에도 참고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려된다.¹⁾ 그러나 양방에서 전 분야에 걸쳐 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병원별, 지역별 등으로 외래 환자 및 입원환자의 통계자료를 발표하는데 반해^{2,6)}, 한의계에서는 80년대 들어서야 한방소아과에서 외래환자^{7,8)}와 응급실 내원환자⁹⁾ 등에 대한 통계를 낸 것과 2000년도에 외관과 외래환자에 대한 통계 자료¹⁾를 발표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안이비인후피부과 질환의 분포상과 윤곽을 파악하고자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 진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분포, 질환별 유형,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고찰을 하였다.

관찰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만 1년 6개월간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로 내원한 신환 총 1,394명(중복처리자 194명 포함 총 15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외래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성별, 초진 당시의 연령, 진단명,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신환자들을 분석하였다.

진단명은 한의학적 진단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진단명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중요한 두 개의 질환을 선택하여 중복 처리하였다.

한 환자가 일정기간 치료를 받다가 같은 진단명으로 3개월 이후에 다시 내원한 경우에는 신환으로 처리하였다.

안, 이비인후, 피부과 신환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질환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결과

1. 안, 이, 비, 인후, 구강, 피부과, 기타 질환군별 분포도

조사 대상 환자 중에서 각 질환군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口眼喎斜 및 感冒 등 其他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환자 중에서 534명(33.63%)으로 가장 높았으며, 皮膚질환이 366명(23.05%), 眼科질환 226명(14.23%), 鼻질환 221명(13.92%), 耳질환 131명(8.25%), 咽喉질환 76명(4.79%), 口腔질환 34명(2.1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and Dermatology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Distribution	Ratio
眼科	226	14.23%
鼻科	221	13.92%
耳科	131	8.25%
咽喉科	76	4.79%
口腔科	34	2.14%
皮膚科	366	23.05%
其他	534	33.63%
Total	1588	100%

2. 眼 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226명의 조사 대상자 중 남자는 44.69%였으며,

여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5.31%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의 여자환자가 14.16%, 남자는 12.39%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50대, 40대, 20대의 순으로 남녀가 동일한 연령별 분포를 보였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n Sex, Age of Ophthalmology Patients.

Male(Ratio)	Distribution	Female(Ratio)
6(2.65%)	0-10 years old	3(1.33%)
7(3.09%)	11-20	7(3.08%)
13(5.75%)	21-30	20(8.85%)
7(3.08%)	31-40	11(4.87%)
17(7.52%)	41-50	25(11.06%)
23(10.18%)	51-60	27(11.95%)
28(12.39%)	61 years old over	32(14.16%)
101(44.69%)	Sex ratio	125(55.31%)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은 2주이내가 85.8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2-4주 이내가 6.64%, 5-8주 이내가 4.43%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Ophthalm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2week within	194	85.84%
2-4	15	6.64%
5-8	10	4.43%
9-12	2	0.88%
13week over	5	2.21%
Total	226	100%

3) 질환별 분포

眼科 질환 중에서 胞輪振跳가 전체 안과 환자 중 23.0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肝勞 17.70%, 暴風客熱 14.60%, 眼檢下垂, 鍼眼 6.19%의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Table 4. Frequency of Ophthalmologic 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肝勞	40(17.70%)
臉弦赤爛	4(1.77%)
近視	3(1.33%)
努肉攀睛	1(0.44%)
綠風內障	2(0.88%)
倒睫拳毛	1(0.44%)
妄視	1(0.44%)
白睛溢血	1(0.44%)
斜視	7(3.10%)
宿翳	1(0.44%)
時復症	14(6.19%)
眼檢下垂	7(3.10%)
夜盲	1(0.44%)
雲霧移睛	5(2.21%)
遠視	1(0.44%)
圓翳內障	5(2.21%)
流淚	10(4.42%)
青盲	3(1.33%)
聚星障	7(3.10%)
鍼眼	14(6.19%)
胞輪腫脹	4(1.77%)
胞輪振跳	52(23.01%)
暴盲	2(0.88%)
暴風客熱	33(14.60%)
風赤瘡癩	6(2.65%)
火疳	1(0.44%)
Total	226(100%)

3. 鼻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221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52.94%였으며 여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06%로 여자환자보다 남자환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대 남자가 18.10%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여자는 10세 이하가 14.48%로 높았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남자환자의 연령별분포는 10세 이하,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연령분포는 30대, 10대, 40대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5).

Table 5. Distribution on Sex, Age of Rhinology Patients.

Male(Ratio)	Distribution	Female(Ratio)
39(17.65%)	0-10 years old	32(14.48%)
40(18.10%)	11-20	19(8.60%)
11(4.98%)	21-30	7(3.17%)
12(5.43%)	31-40	25(11.31%)
4(1.81%)	41-50	12(5.43%)
7(3.17%)	51-60	6(2.71%)
4(1.81%)	61 years old over	3(1.36%)
117(52.94%)		104(47.06%)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은 2주이내가 70.5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2-4주이내 14.93%, 5-8주 이내가 8.14%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Rhin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2week within	156	70.59%
2-4	33	14.93%
5-8	18	8.14%
9-12	5	2.26%
13week over	9	4.07%
Total	221	100%

3) 질환별 분포

鼻科 질환 중에서 鼻鼽환자가 가장 많아 전체 鼻질환 환자 중 48.8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鼻淵이 20.81%, 鼻窒이 19.4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Frequency of Rhinologic 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鼻腔乾燥	4(1.81%)
鼻疳	4(1.81%)
鼻鼽	108(48.87%)
鼻衄	10(4.52%)
鼻淵	46(20.81%)
鼻窒	43(19.46%)
鼻痔	3(1.36%)
鼻痛	1(0.45%)
鼻塞	1(0.45%)
酒齶鼻	1(0.45%)
Total	221(100%)

4. 耳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131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50.38%였으며, 여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9.6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의 남자가 19.08%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여자 역시 61세 이상이 16.80%로 높았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남자 환자의 연령별분포는 10세이하,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연령분포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8).

Table 8. Distribution on Sex, Age of Otology Patients.

Male(Ratio)	Distribution	Female(Ratio)
14(10.69%)	0-10 years old	7(5.34%)
2(1.53%)	11-20	1(0.76%)
7(5.34%)	21-30	8(6.11%)
1(0.76%)	31-40	9(6.87%)
8(6.11%)	41-50	13(9.92%)
9(6.87%)	51-60	5(3.82%)
25(19.08%)	61 years old over	22(16.80%)
66(50.38%)		65(49.62%)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은 2주이내가 64.8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2-4주이내가 18.32%, 5-8주이내가 12.21%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Ot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2week within	85	64.89%
2-4	24	18.32%
5-8	16	12.21%
9-12	2	1.53%
13week over	4	3.05%
Total	131	100%

3) 질환별 분포

이과 질환 중에서 耳鳴환자가 가장 많아 전체 이과

환 환자 중 30.5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眩暈 19.85%, 耳脹 13.74%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10).

Table 10. Frequency of Otologic 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膿耳	15(11.45%)
耳內有物	2(1.53%)
耳聾	16(12.21%)
耳鳴	40(30.53%)
耳門癢	1(0.76%)
耳痒	7(5.34%)
耳癢	1(0.76%)
耳脹	18(13.74%)
耳痛	3(2.29%)
耳血腫	1(0.76%)
聾耳	1(0.76%)
眩暈	26(19.85%)
Total	131(100%)

5. 咽喉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76명의 환자 중 남자는 42.11%, 여자는 57.89%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로는 40대 남녀가 각각 10.53%, 1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20대, 10대 순으로, 여자는 30대, 20대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11).

Table 11. Distribution on Sex, Age of Laryngology Patients.

Male(Ratio)	Distribution	Female(Ratio)
4(5.26%)	0-10 years old	1(1.32%)
5(6.58%)	11-20	2(2.63%)
6(7.89%)	21-30	9(11.84%)
3(3.95%)	31-40	10(13.16%)
8(10.53%)	41-50	13(17.11%)
2(2.63%)	51-60	5(6.58%)
4(5.26%)	61 years old over	4(5.26%)
32(42.11%)		44(57.89%)

2) 치료기간별 분포

2주 이내가 85.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정순영 외 1인 : 안이비인후과외과 외래환자의 임상적 분석

보였으며, 2-4주 이내, 5-8주 이내가 5.26%, 13주 이상이 2.6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Laryng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2week within	65	85.53%
2-4	4	5.26%
5-8	4	5.26%
9-12	1	1.32%
13week over	2	2.63%
Total	76	100%

3) 질환별 분포

咽喉질환에서는 76명의 환자 중 喉痺질환이 56.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梅核氣 18.42%, 喉痞 9.2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Frequency of Laryngologic 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梅核氣	14(18.42%)
聲嘶	5(6.58%)
乳蛾	6(7.89%)
喉癢	1(1.32%)
喉痺	43(56.58%)
喉痞	7(9.21%)
Total	76(100%)

6. 口腔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34명의 환자 중에서 남녀가 50%씩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별로 여자는 61세 이상의 환자가 1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30, 40대가 11.76%로 높게 나타났으며, 61세 이상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4).

Table 14. Distribution on Sex, Age of Stomatology Patients.

Male(Ratio)	Distribution	Female(Ratio)
1(2.94%)	0-10 years old	0(0%)
1(2.94%)	11-20	0(0%)
2(5.88%)	21-30	3(8.82%)
4(11.76%)	31-40	2(5.88%)
4(11.76%)	41-50	4(11.76%)
2(5.88%)	51-60	2(5.88%)
3(8.82%)	61 years old over	6(17.65%)
17(50%)		17(50%)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에서는 2주 이내가 82.3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2-4주가 11.76%, 9-12주 이내, 13주 이상이 2.94%를 차지하였다(Table 15).

Table 15.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Stomat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2week within	28	82.35%
2-4	4	11.76%
5-8	0	0%
9-12	1	2.94%
13week over	1	2.94%
Total	34	100%

3) 질환별 분포

口腔질환에서는 口瘡환자가 26.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脣震動이 20.59%로 높았으며, 舌瘡와 악관절 이상이 각각 11.76%, 8.82%로 나타났다(Table 16).

Table 16. Frequency of Stomatologic 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口角流涎	1(2.94%)
口味變化	1(2.94%)
口瘡	9(26.47%)
弄舌	2(5.88%)
舌強	1(2.94%)
舌癌	1(2.94%)
舌瘡	4(11.76%)
脣震動	7(20.59%)
地圖上舌	1(2.94%)

顎關節異常	3(8.82%)
炸腮	1(2.94%)
齒痛	1(2.94%)
下顎痛	2(5.88%)
Total	34(100%)

7. 皮膚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366명의 피부질환 환자 중에서 남자는 47.81%, 여자는 52.19%로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별로 남녀 모두 20대가 11.75%, 1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자는 40대, 10세 이하, 30대 순으로, 여자는 30대, 40대, 10세 이하 순의 비율로 나타났다(Table 17).

Table 17. Distribution on Sex, Age of Dermatology Patients.

Male(Ratio)	Distribution	Female(Ratio)
32(8.74%)	0-10 years old	26(7.10%)
14(3.83%)	11-20	17(4.64%)
43(11.75%)	21-30	56(15.30%)
27(7.38%)	31-40	42(11.48%)
37(10.11%)	41-50	26(7.10%)
8(2.19%)	51-60	18(4.92%)
14(3.83%)	61 years old over	6(1.64%)
175(47.81%)		191(52.19%)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에 있어서 2주 이내가 73.9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2-4주 이내 12.84%, 5-8주 이내가 9.02%를 나타냈다(Table 18).

Table 18.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Dermat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2week within	267	73.95%
2-4	47	12.84%
5-8	33	9.02%
9-12	5	1.37%
13week over	14	3.83%
Total	366	100%

3) 질환별 분포

皮膚질환에서는 肺風粉刺 환자가 12.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癩疹이 10.66%, 四彎風 9.56%, 浸淫瘡 8.20%, 胎斂瘡 7.92%, 面遊風 6.56% 순의 비율을 보였다(Table 19).

Table 19. Frequency of Dermatologic 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肝斑	4(1.09%)
乾皮症	6(1.64%)
結核	1(0.27%)
鷄眼	3(0.82%)
咬傷	6(1.64%)
皸裂瘡	2(0.55%)
瘰癧	3(0.82%)
丹毒	3(0.82%)
痰飲外症	1(0.27%)
凍傷	2(0.55%)
馬疥	5(1.37%)
面遊風	24(6.56%)
貓眼瘡	5(1.37%)
白駝風	5(1.37%)
白疔	13(3.55%)
白癬	12(3.28%)
白屑風	2(0.55%)
蛇串瘡	12(3.28%)
四彎風	35(9.56%)
四肢逆冷	2(0.55%)
鼠乳	4(1.09%)
搔痒症	4(1.09%)
手疥	7(1.91%)
水痘	1(0.27%)
鵝掌風	2(0.55%)
鵝爪風	2(0.55%)
羊胡瘡	2(0.55%)
熱瘡	4(1.09%)
癰瘤	2(0.55%)
溫毒發斑	1(0.27%)
癩疽	10(2.73%)
油風	2(0.55%)
肉龜瘡	1(0.27%)
癩疹	39(10.66%)
日晒瘡	1(0.27%)
紫白癩風	4(1.09%)
紫癩風	1(0.27%)
赤白遊風	8(2.19%)
癰	1(0.27%)
千日瘡	4(1.09%)
痔裂	1(0.27%)

痔核	1(0.27%)
漆瘡	6(1.64%)
浸淫瘡	30(8.20%)
脫毛	1(0.27%)
胎斂瘡	29(7.92%)
扁瘡	1(0.27%)
肺風粉刺	45(12.30%)
風熱瘡	1(0.27%)
狐尿刺	2(0.55%)
狐惑	1(0.27%)
火傷	1(0.27%)
黃水瘡	1(0.27%)
Total	366(100%)

8. 기타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기타질환에서 남자는 42.13%, 여자는 57.87%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에서 남자는 40대가 8.9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61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61세 이상이 1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0).

Table 20. Distribution on Sex, Age of Other Patients.

Male(Ratio)	Distribution	Female(Ratio)
31(5.81%)	0-10 years old	22(4.12%)
13(2.43%)	11-20	14(2.62%)
18(3.37%)	21-30	30(5.62%)
41(7.68%)	31-40	45(8.43%)
48(8.99%)	41-50	69(12.92%)
33(6.19%)	51-60	54(10.11%)
41(7.68%)	61 years old over	75(14.04%)
225(42.13%)		309(57.87%)

2) 치료기간별 분포

총 534명의 환자 중 2주 이내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69.29%의 비율을 보였고, 2-4주 이내, 5-8주 이내가 각각 13.67%, 9.55%로 나타났다(Table 21).

Table 21.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Other Patients.

Term	Number	Ratio
2week within	370	69.29%
2-4	73	13.67%
5-8	51	9.55%
9-12	19	3.56%
13week over	21	3.93%
Total	534	100%

3) 질환별 분포

기타 질환의 분포에 있어서 口眼喎斜가 5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感冒가 15.36%의 비율을 보였으며, 頭風, 顏面痙攣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2).

Table 22. Frequency of Other 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感冒	82(15.36%)
口眼喎斜	292(54.68%)
癆瘵	1(0.19%)
頭痛	10(1.88%)
頭風	38(7.12%)
面寒	3(0.56%)
面痛	20(3.75%)
顏面痙攣	35(6.55%)
顏面麻木	4(0.75%)
咳嗽	39(7.30%)
哮喘	10(1.87%)
Total	534(100%)

고찰

眼科 질환은 전체 대상 환자 중에서 14.23%를 차지하였으며, 남녀 모두 61세 이상의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 김¹⁾의 논문에서 10세 이하의 남, 여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다른 분포를 보였다. 이는 경희대부속 시내 한방병원에서 斜視 치료를 많이 하는 것과 달리 胞輪振跳와 肝勞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료기간에 있어서는 2주 이내가 85.84%를 차지하여 다른 질환에서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暴風客熱이나 鍼眼 등과 같은 짧은 기간에 치료되는 환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또한 질환 분포에 있어서는 김¹⁾의 논문에서와 같이 귀나 코 질환에 비해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내원하였으며 이는 현대의학에서 안과질환의 다수가 치료적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한방의 안과질환의 치료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鼻질환은 전체 질환 중에서 13.9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침구치료와 한약의 복용 등 한의학적 치료가 비교적 좋은 鼻軌와 鼻淵의 환자가 다수 내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20대 미만의 남자와 10세 이하의 여자 환자가 鼻질환 환자 중 50.2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김¹⁾의 10세 이하 30대까지의 연령층을 갖고 있다는 것과 鼻淵에 관한 홍 등¹⁰⁾의 발병율과 유사하다. 치료기간에 있어서는 1개월 이내가 85.52%로 53.71%인 김¹⁾과는 차이가 있으나 鼻淵에 있어서의 3주 이내의 83.76%인 김 등¹¹⁾의 것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질수록 외부자극에 그대로 노출되는 코의 갖가지 질병도 늘어나고 있으므로¹¹⁾ 이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방안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본다.

耳科 질환은 耳鳴과 眩暈, 耳聾 환자가 62% 정도를 차지하였다. 남녀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남녀의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61세 이상의 남녀가 35.88%로 가장 높아서 김¹⁾에서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김¹⁾은 耳鳴, 難聽환자가 81.39%, 眩暈 환자가 2.55%로 耳鳴, 難聽 환자의 비율과 비슷하게 분포한 반면 본원에서는 60대 이상의 환자비율이 큰 眩暈 환자¹²⁾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료기간에 있어서는 2주 이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른 질환과 특이할 것이 없으나, 2-4주, 5-8주의 치료기간이 타 질환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채¹³⁾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耳鳴과 眩暈의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질환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咽喉질환에서는 喉痺와 梅核氣 질환이, 口腔질환에서는 口瘡과 脣震動이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김¹⁾의 연구와 같은 양상이다.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喉痺와 과민한 신경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梅核氣, 咽痛, 口瘡 등은 한의학적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한방 외용약으로도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다¹⁴⁾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皮膚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이는 김¹⁾이 언급하였듯이 피부과 영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질환별 분포에 있어서는 肺風粉刺, 癩疹, 서양의학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해당하는 질환이 상위를 차지하였는데, 양방적 피부과의 상위 빈도 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¹⁵⁾ 이는 피부과의 양방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 한방과 양방을 모두 내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그러나 치료기간을 살펴보면 양방치료뿐 아니라 한방치료 역시 기존의 임상논문의 발표대로 치료가 비교적 어렵다는 것^{1,16-19)}과 단기간 내원한 환자가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단기간의 치료보다는 장기간의 치료를 통해 유의한 효과를 얻은 경우가 많으므로¹⁶⁻¹⁸⁾ 피부질환 환자들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피부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질환군은 口眼喎斜를 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 보는 본원의 특성상 口眼喎斜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喎斜의 한의학적 치료율이 높기 때문에^{20,21)} 내원환자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感冒환자 역시 다수 내원하였으나, 가장 흔한 급성질환임에도 내원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한약이 초기증상에 더 유효한 효과²²⁾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급성보다는 만성에 유효하다는 일반적 인식²³⁾으로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빈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역기스 제제의 활용이나 인식 전환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서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에 내원한 환자 1394명(중복처리지자 포함 1588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질환별, 치료기간별 분포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眼, 耳, 鼻, 咽喉, 皮膚, 口腔, 기타질환의 질환군별 분포도는 전체 내원 환자 중에서 眼科가 14.23%, 鼻科가 13.92%, 咽喉科가 4.79%, 皮膚科가 23.05%, 耳科가 8.25%, 口腔科가 2.14%, 기타질환이 33.63%로 나타났다.
2. 眼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 여자군 모두 61세 이상에서 각각 12.39%, 14.16%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치료기간은 2-4주 이내가 85.84%로 높게 관찰되었으며 질환별로는 胞輪振跳가 23.01%, 肝勞가 17.70%의 순으로 나타났다.
3. 鼻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군은 10대가 여자군은 10세 이하군이 각각 18.10%와 14.48%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치료기간은 2-4주 이내가 70.59%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질환별로는 鼻鼾가 48.87%, 鼻淵이 20.8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耳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61세 이상의 환자군에서 19.08%, 1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기간은 2-4주 이내가 64.89%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질환별로는 耳鳴이 30.53%, 眩暈 19.8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咽喉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40대 환자군에서 각

각 10.53%, 1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료 기간은 2주 이내가 85.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질환별로는 喉痺가 56.58%, 梅核氣가 18.42%의 순으로 나타났다.

6. 口腔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30대, 40대가 11.76%로 높게 나왔으며 여자는 61세 이상에서 17.6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치료기간은 2주이내가 82.35%를 차지했으며, 질환별로는 口瘡이 26.47%, 脣靨動이 20.59%의 순으로 나타났다.
7. 皮膚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20대가 11.75%, 1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기간은 2주 이내가 72.95%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질환별로는 肺風粉刺가 12.30%, 癩疹이 10.66%의 순으로 나타났다.
8. 기타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40대가 8.99%, 여자는 61세 이상에서 1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기간은 2주 이내가 69.29%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질환별로는 口眼喎斜가 54.36%, 感冒 15.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1. 김운범: 외관과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3(1):280-290, 1992
2. 이대진: 소아과 입원환자에 대한 보건통계학적 관찰, 고려대 의대 잡지 2:179-192, 1965
3. 만병근, 김종녕, 이수일 등: 정신과 입원환자의 통계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4(2): 171-188, 1975
4. 윤용삼, 이재우, 구자영 등: 과거십년간 입원환 소아관 질환예에 대한 통계적 소고, 대한내과학회잡지 19(6):499-508, 1976
5. 조백기: 피부과 질환의 통계적 고찰(1968-1972), 가톨릭 대학 의학부 논문집 24:196-204,1974
6. 송동훈, 강원형, 이성남: 원주 지역 피부 질환의 통계적 고찰(1980-1984), 대한피부과학회지 26(1): 34-43, 1988
7. 김덕곤, 정규만, 김동현: 한방소아과 외래환자에 대한 임상통계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6(2):867-871, 1985
8. 이승연: 소아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5(1):203-216, 2001
9. 강미선, 장규태, 김장현: 한방의료기관내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환자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7(1):117-129, 2003
10. 홍천수, 이미경: 서울 집먼지내 집먼지 진드기 Group 1 알레르겐의 측정과 Der fl의 월별 변동에 관한 조사, 알레르기 12(4):482-492, 1992
11. 김운범, 채병윤: 분체, 비류청체, 비색증 등을 수반한 환자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한의학회지 14(2):162-167, 1993
12. 원종훈, 이울관, 이성만 등: 급성 현훈발작의 임상적 고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38:218-229, 1995
13. 채병윤: 이명에 대한 임상적연구, 대한한의학회지 7(1):109-116, 1986
14. 구영희, 최인화: 비강 및 인두질환에 있어 콧통과 보이스의 자각증상 호전도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5(1):129-141, 2004
15. 최호철, 고우석, 김방순: 서울시 노원구와 그 인접 지역의 피부질환의 통계적 고찰(1997-1999), 인제 의학 20(1):249-253, 1999
16. 채병윤: 외과 및 피부질환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6(2):79-87, 1985
17. 박항기, 채병윤: 피부소양증의 임상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7(2):95-102, 1986
18. 김중호, 채병윤: 은진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7(2):84-94, 1986
19. 김중호, 채병윤: 백박풍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8(2):90-95, 1987
20. 김혜남, 신용철, 송경변 등: 구안와사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5(1):246-252

정순영 외 1인 : 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환자의 임상적 분석

21. 정재호, 권강, 서형식: 구안와사(특발성 안면신경 마비)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 학회지 16(1): 130-140, 2003
22. 조황성: 감기의 한방치료 효능에 관한 임상적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1):347-362, 1995
23. 이훈, 정재환, 이진용 등: 소아감모에 대한 임상적 고찰(1999.1.1~1999.2.12),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3(2): 125-137, 1999